신소설의 성(性)·계급·국가*

-여성 주인공에 있어 젠더와 정치성의 문제-

권보드래**

차 례

1. 여성 소설로서의 신소설
2. 여성의 모험과 여성 신체의 현실성
3. 서리(胥吏)의 딸, 개체성의 감각
4. 남성—이주의 서사와 여성—망명의 서사
5. 여성성의 정치적 함의와 신소설

국문초록

신소설은 여성 주인공의 압도가 두드러진 양식이다. 비슷한 시기 창작된 역사·전기물이 남성 주인공을 내세워 민족적 서사를 창조해 간 반면, 신소설은 성적 수난을 거쳐 가정으로 귀환하는 여성의 서사를 핵심으로 한다. 사적 영역에 국한된 듯 보이는 이 서사는,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존재양상의 변화, 중인 및 평민층이라는 계급의 부상, 망명객을 중심으로 한 국가 구상이라는 다양한 층위를 함축하고 있다.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은 자기 의사로 가출, 집 밖의 세계에서 성적 위협에 시달리면서 서사를 추동해 가는데, 이는 조선 후기 소설에서 여성들이 '여화위남(女化爲男)'이라는 장치를 통해서나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역사와 대비된다. 이렇듯 홀로 집 밖에서의 수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설정은 중인 및 평민층의 신분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

* 본 연구는 2006년도 동국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비(侍婢) 없이 단독적인 존재로 세계 속에 던져진 여성 주인공들은 실제 신분 설정에 있어서도 서리(胥吏)의 딸로 전형화되어 있다. 신소설에서 몇 편 되지 않는바 남성 주인공을 중심에 내세운 텍스트와 비교해 볼 때, 여성 주인공은 망명의 서사를 지지한다는 특성 또한 내비친다. 남성 주인공이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외국에서의 이력을 개척하는 이주의 서사를 주도해 간다면, 여성 주인공은 부재를 견디고 귀환을 목표로 하는 망명객의 서사에 접근해 있다. 신소설 전반을 요약하는 무리한 작업을 무릅쓴다면, 신소설은 여성의 사회적 좌표의 변이를 반영하면서 중인 및 평민층의 신분 감각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망명객들로 대표되는 국가 기획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소설의 풍부한 사회·정치적 함축은 새로이 독해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신소설, 여성 주인공, 젠더, 성적 수난, 중인, 망명, 이주, 정치성, 여화위남(女化爲男), 현실적 육체성

1. 여성 소설로서의 신소설

신소설은 여성적인 장르이다. 『혈의누』와 『귀의성』, 『빈상설』과 『홍도화』, 『추월색』과 『금강문』 등 대중적인 인기에서나 문학사에서의 영향에서나 주목할 만한 신소설이 모두 여성 주인공을 내세웠고 나아가 여성의 생애를 서사의 초점으로 했기 때문이다.[1] 최초의 신소설이라 해야 할 『혈의누』에서부터 이런 면모는 약여하다. 『혈의누』의 서사를 점화한 사건, 청일전쟁 당시의 평양전투 이후 서사적 행로를 시작하는 사람은

1) 신소설을 '여성의 서사'로 연구한 성과로는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2000)와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2005) 제4장; 배주영, 「신소설의 여성담론 구조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2000);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한국현대문학연구』 10집, 한국현대문학회, 2000; 김경애, 「신소설의 '여성 수난 이야기' 연구」, 『여성문학연구』 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등 참조.

기실 두 명이다. 한창 장년으로 평양서 이름난 한량이었던 김관일과, 그의 7세 된 딸 옥련. 출발점에서의 자의식으로 말하자면 김관일이 여러 급 위이건만, 『혈의누』는 김관일을 외면한 채 철저하게 옥련에게 초점을 맞춘다. 옥련이 중도에 만난 청년 구완서에 대해서도 『혈의누』의 관심은 인색하다. 김관일은 10년간 미국 유학을 경험한 후에도 "영문에 서툴러서 보기를 잘못"[2]할 정도로 더딘 성장을 보이며, 구완서의 변화 역시 옥련과 비교하면 지지부진하다. 옥련이 "고등소학교에서 졸업우등생"(69)으로 명예를 빛내는 반면 구완서는 "계집의 재주가 사나이보다 나은 것이로구나"(70)라는 축하의 말을 던지는 데 만족해야 할, 조연의 역할에 머무른다. 김관일이 "내 나라 사업을 하리"(14)라는 각성 과정을 거쳤고 구완서는 나아가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86) 강렬한 사회의식을 내비치지만, 『혈의누』의 주인공은 주체적으로는 한번도 그런 거대담론에의 지향을 보인 적 없는 옥련이며[3] 가장 앞날을 촉망하게 되는 것 또한 옥련이다.

이후 옥련의 후예들은 위축되고 보수화되면서나마 신소설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 대부분의 신소설에서 중심인물은 명백히 여성이며, 남성은 주변적이고 방계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소설사 특유의 현상으로, '정치'나 '견책(譴責)'의 단계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가정'과 '원앙호접(鴛鴦胡蝶)'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와 다르며[4] 스탕달·발자크의 프랑스나 괴테·쉴러의 독일과는 물론 『로

2) 이인직, 『혈의누』, 김상만서포, 1907, 69쪽. 이하 신소설 본문을 인용할 때는 처음 인용할 때만 서지를 밝히고 이후는 면수만 표시하도록 한다.

3) 옥련 또한 소설 말미에서는 '조선 부인'을 위해 헌신하고 그 모범이 되리라는 다짐을 내비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완서의 말에 자극받은 결과, "옥련이가 구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또한 조선 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여"(85) 같은 절차를 거친 결과이다.

4) 일본에서는 1880년대 후반부터 가정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하며 중국에서는 1910년

빈슨 크루소』와 『패밀라Pamela』가 나란히 경쟁했던 영국의 경우와도 구별된다. 아마 일본의 '정치'나 중국의 '견책'에 가까운 서사 전통으로는 신소설과 비슷한 시기 출현했던 단형 서사체와 역사·전기물을 들어야 할 터인데, 단형 서사체는 더 이상의 독자적 발전을 보이지 못한 채 끝났고, 역사·전기물은 신소설에 비해 자발적 호응도가 현저히 뒤떨어진 양식이었다. 『태서신사』(1896)가 널리 교과서로 활용된 것을 시작으로 『월남망국사』 『서사건국지』 등 외국 사기가 번역된 것은 물론이고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최도통전』 등 민족영웅의 생애를 다룬 전기 또한 다수 창작되었으나, 학교에서 상품으로 수여되고 교과서처럼 읽힌 외에 자발적 독서의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나무장수들이 모여 신문·월보 구독 경험과 『애국부인전』 낭독 경험을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고[5] 『라란부인전』을 읽은 후 "저도 여자요 나도 여자이라 어찌 저만 여중 영웅의 이름이 만국에 전파하였느뇨"라며 탄식했다는 여학생의 소문이 전하기는 하지만[6] 몇십 년 후까지 술회된 신소설의 위력에 비하자면 역사·전기물이 누린 대중적 호응이란 국지적이고도 한시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의미심장하게도, 제한된 한에서나마 여성과 노동자 등 하위주체들의 호응을 얻은 서적은 역사·전기물 중에서도 여성 영웅의 전기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역사·전기물이 국한문을 저본으로 출판된 데 비해 『애국부인전』 『라란부인전』 등은 순국문으로 출간되었다는

대에 와서야 재자가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원앙호접파'의 소설이 본격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中村光夫, 고재석·김환기 옮김, 『일본 메이지문학사』, 동국대 출판부, 2001, 160~161쪽 및 阿英, 전인초 옮김, 『중국근대소설사』, 정음사, 1987, 297~303쪽 참조).

5) "근일에 국문으로 발행하는 신문과 월보를 구독하니 甚有滋味하여 증전에 유행하던 소대성전 장풍운전 등속을 일병 폐지하였노라(…) 애국부인전을 得覽하니 其意가 甚好한 고로 항상 妻兒를 대하여 낭독하노라"(「柴商談話」, 『황성신문』 1909. 4. 28 논설).

6) 「여중호걸」, 『대한매일신보』 1907. 12. 28.

사실과도 호응한다. 대체 근대 초기에 여성 주인공, 나아가 여성의 서사가 대중적인 관심의 핵심에 위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그 특징과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달리 접근하자면, 이 시기 '소설'이라는 양식에 있어 여성 주체와 남성 주체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의 연관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담론과 표상의 구조에 있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독자의 구성이라든가 작가의 배경과 개성에 온전히 접근할 수 없는 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회적일 수밖에 없다. 아마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더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질문의 다각적 제기나마 시도해 보도록 한다.

2. 여성의 모험과 여성 신체의 현실성

역사·전기물은 남성적인 장르이고 신소설은 여성적인 장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둘은 각각 남성 영웅과 여성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을뿐더러, 남성적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확언할 수 없으되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라는 구분에도 합치할 듯 보인다. 역사·전기물은 '민족이라는 주체의 역사'라는 설정[7]에 충실한 반면, 신소설은 당대를 배경으로 일상의 계기를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고, 역사·전기물이 문자 언어의 전통에서 출발하는 반면 신소설을 규정하는 것은 구술 언어의 현장성이라고 할 수 있다.[8] 또한 역사·전기물은 대부분

7) P.Djuara, 문명기·손승회 옮김,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2004, 47쪽 및 56쪽 참조.

8) 역사·전기물과 독서 체험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160~162쪽, 신소설과 구술 언어의 관련에 대해서는 같은 책 176~177쪽 참조.

국한문체로 창작되었고, 따라서 한문의 세계에서 국문의 세계로 이동해야 했던 남성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적합한 양식이었다면, 신소설은 순국문 글쓰기를 최대의 특징으로 하는 양식으로서, 새로이 사회적 주체로 소환되고 있던 여성과 농·상·공의 평민층에게 호소하기 쉬운 양식이었다. 역사·전기물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주로 소비된 반면 신소설은 자발적 독서 시장에서 소비되고 연행 문화와 결합되어 수용된다. 이렇게 보면 근대 초기 서사문학의 역사란 남성성과 여성성이 평행 발전한 역사, 두 이질적 선분 사이의 만남이 거의 목격되지 않는 역사처럼 비친다. 역사·전기물이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헌신하는 반면 신소설은 사적이고 가정적인 주제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이 평행·분리의 구도에 적절히 부합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1890년대에 발전한 일본의 가정소설이나 1910년대 이후 성행한 중국의 원앙호접파 문학에 비해 보면, 한국 신소설의 주인공은 가정적 존재로서의 특질을 현저하게 약하게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가정소설이나 원앙호접파 소설의 경우, 여성 주인공의 생명은 가정에서 비롯되어 가정에서 끝난다. 일본 가정소설과 그 주변의 『금색야차』『불여귀』『젖자매』 등에서, 여성 주인공은 모험이나 기적의 세계와 어떤 연관도 없으며, 남성이 집 밖에서 모험을 감행하는 동안 가정에서 음해당하고 수난에 처한 채 기다려야 하는 인물들이다. 중국 원앙호접파의 여성 주인공들[9] 역시 신문기자와 사랑을 나누고 국무총리의 며느리가 되는 등

9) 원앙호접파 문학은 『星期六』『小說叢報』 등 잡지를 주무대로 등장한 저널리즘 문예이며, 연애를 모티프로 하고 있지만 張恨水의 『春明外史』처럼 남성 주인공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견책적' 요소를 짙게 도입한 사례도 없지 않다. 한국 신소설과 비교하기 더 적절한 것은 차라리 전래 재자가인 소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창작된 비슷한 시기의 言情 소설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대표작 중 하나인 『恨海』가 보여주듯 언정 소설은 정치·사회적 사건을 도입하면서 여성 주인공을 유랑의 길에 오르도록 하기도 한다(張競, 임수빈 옮김,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소나무, 2007, 120~140

남성 주인공을 매개로 정치·사회와의 접점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집 안의 존재로 시종한다. 『패밀라』『클래리싸』의 작가인 영국 소설가 리처드슨에 대해 제기되었던 평을 빌자면,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가사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중산계급의 인간"[10]이 그 주인공인 셈이다. 반면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은 결혼으로 낙착되는 서사 구조에 지배되고 있으면서도 집 안의 세계보다는 더 자주 집 밖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혈의누』에서, 『빈상설』에서, 『목단화』와 『추월색』에서 여성 주인공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만, 서사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자의로 혹은 타의로 집 밖에 나선 후 주인공이 겪는 사건이요 그 일환으로서의 연속적인 수난이다. 지금까지 연구사에서 주목된 것은 주인공의 수난, 특히 '성적' 수난이라는 측면이었으나, 따라서 여성= 성적 존재로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신소설의 보수성을 증명한다는 해석 또한 피하기 어려웠으나,[11] 거꾸로 보자면, 성적 수난이라는 형식 속에서나마 여성이 계속 집 밖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한국 신소설의 여성은 일본의 가정소설이나 중국의 원앙호접파 소설에서 남성에 할당되어 있는 역할, 즉 집 밖의 존재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이양받는다. 그 실질적 성과를 차치하고라도 이양의 양상은 그 자체로 주

쪽 참조). 신소설과의 유사성이 발견되는 대목이므로 숙고를 요한다. 여기서 원앙호접파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선택을 한 것은 근대 초기 소설사에서 남성/ 여성,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사이 대립을 '가상'할 때 견책소설에 어울릴 만한 짝패로서 두드러지는 흐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 삼아 원앙호접ducks and butterflies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부기해 둔다(정동보, 「'원앙호접'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중국인문과학』 20호, 중국인문학회, 2000 참조). 張恨水 소설에 대해서는 허근배, 「張恨水와 그의 소설」, 『교육연구』 5호, 1988 참조.

10) A.Houser, 염무웅·반성완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창작과비평사, 1989, 80쪽.

11) 각주 (2)에서 든 논문들이 실제로 이런 결론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김경애, 앞의 논문, 130~131쪽의 경우 여성의 미덕이 해결책이 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아 신소설의 순응성을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목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성의 모험'이라는 모티프가 초유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이래 한국 소설사는 여성 영웅의 형상을 다채롭게 보여준 바 있다. 근래 10여년 사이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들 서사는, 실상 신소설과 거의 겹치는 시기의 서사이다. 『이대봉전』『홍계월전』『이학사전』 등 신소설에 바로 앞서, 심지어는 같은 시기에 인기리에 읽혔던 이들 여성 영웅 소설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보다 주인공의 '여화위남(女化爲男)'과 전장에서의 무공이다. 『이대봉전』의 장애황, 『홍계월전』의 홍계월, 『이학사전』의 이현경 등은 일찍이 남복한 채 자라났거나 전란에 즈음해 남성으로 가장, 난을 평정하고 군주의 인정을 받는다. 이후 가정으로의 복귀 여부나 그 양상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한다 해도 이들은 남편보다 뛰어난 존재이며 한결 시선을 끄는 존재이다.[12] 이런 인물 및 서사에 조선 후기의 여성 현실이 어떻게 굴절된 것인지는 아직 논란거리이지만[13] 이들 예외적인 여성조차 '남성'의 기호로 위장해야만 집 밖에 나설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홍계월은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도 관직에 머무를 수 있었으나 "여복을 입고 그 위에 조복을 입"(202)은 괴이한 차림새로 군무(軍務)에 임해야 했고, "낙루하고 남자 못됨을 한탄하"(203)는 자기부정의 세계에서 살아야 했다. 이들은 남성성이라는 기호를 걸침으로써 비로소 허용될 수 있는 존재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육체를 가진 현실적 존재라기보다 기호에 대한 욕망 그 자체이다.[14]

---

12) 전반적인 논의는 장시광, 「여성 소설의 여주인공과 여화위남」,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사, 2006을 참조했다.

13)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인경, 「여성 영웅 소설의 유형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사재동 편, 『한국 서사문학사의 연구』 4, 박이정, 1995 참조.

신소설에서도 남장 모티프는 광범위하게 등장한다. 아마 『목단화』의 정숙이 가장 유명하겠지만 『강상기우』에서 은인을 찾는 처녀나 『소양정』과 『금옥연』에서 정혼자를 찾아 가출한 처녀, 『빈상설』에서 첩에 내몰리고 『신출귀몰』에서 계시모에 의해 유기된 후 유학 간 남편을 찾아나서는 부인 등, 적잖은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은 여화위남= 남복개착(男服改着) 후 거리에 나선다. 『비파성』의 연희는 정혼자 영록을 두고 다른 데 출가할 것을 강요당하자 남복한 채 영록과 동반 가출하고, 『미인도』의 춘영 역시 강제 결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복 가출하며, 『단산봉황』의 명하 역시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몸종과 함께 남성으로 위장한다. 『절처봉생』에서는 진사의 딸 봉희가 난릿길에 부모를 잃은 후 평민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남복으로 글을 배우러 다니고, 『추천명월』에서는 기생 송련과 여종 김순이 주인공 진사를 따라 남복한 채 유람에 나선다. 신소설로서 드물게 추리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구의산』에서는 주인공 애중이 첫날 밤 신랑이 살해당한 후 남성으로 가장해 범인을 탐지하는 일에 착수한다. 이들 남장한 여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빼어난 미모이지만, "남복을 하셨으나 얼굴이 너무" 곱다는(『목단화』 92)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 정체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하필 부근에 남장한 범죄자가 등장한 까닭에 혐의를 받은 『단산봉황』의 명하가 예외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이대봉전』 『홍계월전』 『이학사전』 등의 여성 영웅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육체가 아니라 기호로서의 육체를 둘러쓴 존재들인 것이다. 후일 『무정』에서 가출한 10대

14) 이 점에서, 동일하게 성적 교차의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드랙drag'과 '여화위남'은 판연히 구별된다. 남성이 여성을 흉내내는 '드랙'은 육체의 현실성을 전제한 위에 기호를 도입하는 것, 즉 불안정성을 유희이자 일종의 교란이지만, '여화위남'은 기호가 육체를 압살하는 기제이다. '드랙'에 대해서는 J.Butler, 김윤상 옮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성'의 담론적 한계들에 대하여』, 인간사랑, 2003, 233~258쪽 참조. 물론 버틀러는 영화 「파리는 불타고 있다」를 분석하면서 '드랙'의 최대치가 양가성 혹은 불안정한 공존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다.

초반의 영채는 남장에도 불구하고 쉬 정체를 들키고 봉변을 당하지만, 조선 후기와 마찬가지로 '기호'일 뿐 '현실적 육체'를 지니지 않은 신소설의 남장 여성들은 결코 성적 정체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신소설 여주인공의 육체는 훨씬 현실적이다. '여화위남'의 모티프의 광범위한 차용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많은 신소설에서 여주인공들은 여성인 채 집 밖에 나선다. 물론 이들은 끊임없이 성적 위협에 직면하고, 과업을 추진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는 대신 수난에 쫓겨 다니는 수동적 신체로 살지만, '집 밖'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으로서의 현실적 육체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신소설의 획기적인 특징이다. 신소설의 주인공은 집에서 강제 축출당하기도 하지만 자주 자기 의지에 의해 집을 나서며, 또한 흔히 가출의 이 두 가지 계기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화세계』와 『비파성』 『소양정』, 『추월색』과 『금강문』, 『금옥연』 『미인도』 등의 주인공들은 강제 결혼에 저항하고 정혼자와의 인연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가출을 감행하고, 『홍도화』의 태희는 시가에서 축출당한 후 개가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을 찾으며, 『설중매화』의 옥희나 『능라도』의 도영은 위기를 피해 가출한 후 타처로 떠나고, 『신출귀몰』의 이씨 부인은 계시모의 계략에 빠져 유인·납치당할 위기를 넘기고는 아예 남편을 찾아 일본에 갈 것을 작정한다.[15] 『치악산』과 『재봉춘』, 『안의성』 『해안』과 『금국화』처럼 강제로 집안에서 쫓겨나 일념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주인공이 없지 않으나, 신소설에서는 소극적 인종의 자세 못지않게 적극적 모색이, 그리고 정지보다 편력과 방랑의 서사가 두드러진다.

비교의 시각을 끌어들이자면, 조선 후기로 편입되는 소설사에 있어 국

15)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에서는 신소설에 있어 가출의 유형을 ① 가족 구성원의 미움을 사 축출당하는 경우 ② 남성에 의해 유혹되거나 납치당하는 경우 ③ 두 계기가 중첩된 경우 ④ 자의에 의해 가출한 경우로 나누고 있다. 이 중 ②와 ④는 신소설에 와서야 목격되는 현상이다.

가나 가문의 와해 없이 여성이 자의로 집을 나서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여성이 집 밖에 던져지는 것은 『최척전』『숙향전』『홍계월전』에서처럼 전란의 와중에서이거나, 『사씨남정기』처럼 흉계에 빠져 강제 축출을 당할 경우이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이대봉전』『여중호걸(김희경전)』『여장군전(정수정전)』 등에서 그러하듯 가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이다. 이 시기 소설에서 여성의 서사에 늑혼(勒婚) 문제가 얽힌 경우는 많지만, 부모의 결혼 강요에 맞서 여성 주인공이 독립 변수로서 가출을 결행하는 서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을 강요당할 때 주인공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란 『최척전』에서처럼 자결을 기도하거나 『김진옥전』에서처럼 앓아누운 채 기껏해야 우연히 날아든 청조(靑鳥)의 다리에 편지를 묶어 띄우는 것이다. 남녀 사이의 만남에 있어서도 18·9세기의 소설에서 전형적인 플롯은 '집 안의 존재'인 여성에게 남성 주인공이 '침범'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 '절단지기(折檀之譏)'의 사건 이후 여성에게 주어진 몫은 남성 주인공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일 따름이다. 집 밖에서 성적 위협에 처하는 주인공이 없지 않지만, 『사씨남정기』에서 보듯 위협의 정도는 미약하며, 그것도 미혼인 여성 주인공에게 주어진 현안이라기보다 『유충렬전』의 모친 같은 기혼의 조역에게 넘겨지는 문제이다. 조선 후기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의 현실적 육체는 어디까지나 남성 주인공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신소설에 와서 비로소 여성 주인공은 개방된 현실적 육체를 갖고 스스로의 독립적 의사로 가출을 감행하며, 끝끝내 침해당하지 않고 '순결'로써 자신을 증명할 서사적 역할을 할당받는다. 남성성의 기호에 대한 여성의 욕망이 약화되는 반면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과 투쟁은 눈에 띄게 격화되어, 여성을 둘러싼 욕망—따라서 여성 주인공의 수난—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까지 조정되는 것 또한 신소설에 와서이다.

3. 서리(胥吏)의 딸, 개체성의 감각

여성이 집 안의 존재로 간주되었던 시절, 신소설의 주인공은 집 밖에 나서 당연히 성적 위협에 처하지만[16]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인공이 홀몸이어야 한다는 것, 즉 동반자 없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출이라는 사건에 남성 주인공과의 분리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성 주인공이 홀로 거리에 나서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꼭 쉽지는 않다. 갑오개혁으로 계급 철폐가 선언되었음에도 반상(班常)의 구별이 엄연하던 1900년대, 양반가 부녀라면 어디 가나 시비(侍婢)를 동반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설혹 주인공을 유인해 내는 경우라 해도 시비의 동행을 막을 수는 없다. 참판의 딸인 『목단화』의 정숙의 경우에 보이듯 주인공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충성스런 시비를 미리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역시 참판의 딸이자 참의의 며느리인 『치악산』의 이씨 부인을 몰아내려면 충비 검홍을 박살하는 절차를 먼저 치러야 하고, 첩이라 해도 김승지의 실내(室內)인 길순을 살해하려면 침모부터 떼어놓아야 한다. 이렇듯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치 않는다면 충성스런 여종은 주인의 곁을 놓치지 않고 따르게 되어 있다. 『빈상설』의 난옥, 즉 승지의 딸이자 판서의 며느리인 이씨 부인은 상노 또복과 그 누이를 동행한 채 길을 나서고, '누대 명문거족'의 외동딸인 『미인도』의 춘영은 강제 결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몸종 계향과 더불어 가출한다. 『단산봉황』에서 참서의 딸 명하는 시비 춘성과 함께 방

16) 집 밖에 나선 '거리의 여성'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런 생각은 종종 신소설 텍스트 내부에서도 표현된다. 예컨대 『빈상설』에서 악비 금분이 "만일 혼자 나섰을 말이면 몇 걸음 안 나아가서 발길에 툭툭 채이는 홀아비에게 붙들려서 내외국 신문에 뒤떠들었을 터인데"(108)라고 하고 있는 대목이나 『행락도』에서 "설혹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홀아비가 도망꾼을 잡아 사는 데는 도리어 찬성"(107)한다며 마을 사람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대목 등이 그렇다.

랑을 시작하고, 『행락도』에서 전 병마절도사의 후처 임씨는 늘 충직한 할멈과 함께한다. 이들에게 있어 시중드는 몸종의 존재란 분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몸종들 역시 대리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주인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다. 『단산봉황』에서 또 다른 몸종 화영은 주인공인 양 가장하고 대신 초례청에 나섰다가 며칠 후 자살함으로써 주인공의 가출을 완벽하게 은폐해 주기마저 하는 것이다.

평민의 딸의 사정은 다르다. 『현미경』에서 종 9품 감역의 딸인 빙주는 말 그대로 혈혈단신이며, 『모란병』에서 전 선혜청 고지기의 딸 금선은 혼자 몸으로 우연한 구원에나 의지해야 하고, 『화세계』에서 이방의 딸 수정 역시 홀로 길을 나설 밖에 없다. 신소설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명문대가의 후손이기보다 말단 관료, 흔히는 겨우 9품 직함을 받아낸 중인 계층의 자손이다. 『광악산』의 태희는 유명무실한 동지(同知)의 딸이고, 후일 감리(監吏)의 며느리가 되는 『옥호기연』의 금주 역시 장옷 대신 "치마를 쓰고"(9) 외출하는 것으로 보아 중인 집 여식일 것이며, 『세검정』의 보옥은 차함(借啣) 없는 생원의 딸로 이방의 양자와 정혼한다. 그런가 하면 『비파성』의 연희는 일본인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일하는 서주사의 딸이고, 『화의혈』의 기생 선초와 모란 자매는 호방인 아버지가 첩에게서 낳은 딸들이다. 돌이켜 보면 『혈의누』의 옥련 역시 부유한 장사꾼인 최주사의 외손녀이자 다만 '한량'인 김관일의 딸이었고, 『귀의성』의 길순은 '상사람'을 자처하는 강동지의 딸이었다. 강동지 부인은 "같은 상사람끼리 혼인하는 것이 좋지"(3)라며 딸을 승지의 첩으로 바쳐버린 남편의 소행을 원망하곤 했던 것이다. 최찬식에 이르면 『안의성』의 정애는 비록 "대대 남행으로 유명하던"[17] 즉 음관(蔭官) 벼슬의 내력이 있는 집안 후손이기는 하나 일찍이 부모를 잃은 후 영락하여 생선장수 오

17) 최찬식, 『안의성』, 박문서관, 1914, 14쪽.

빠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처지요, 『해안』의 경자는 "한미한 농민"의 딸로서 그나마 부친이 세상을 뜬 후 삯바느질 품을 파는 홀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고 있으며, 『능라도』의 도영은 "평양 이속"이었던 부친이 별세한 후 오라비가 "노동도 하여보고 혹 장사도 하여보며, 심지어 평양 진위대 병정까지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18] 최찬식의 출세작이었던 『추월색』의 정임의 경우 시종관 출신 부친에게서 났고 정혼자의 아버지는 승지로서 군수에 임명되지만, 하인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소설 속 풍경이란 서울 양반가의 것은 아니다. 비록 가문의 배경이 시종이요 승지라는 관직명을 빌어 설정되어 있을지언정 그 딸이요 며느리감인 주인공이 몸종 없이 살고 홀로 집을 나설 수 있는 감각이란 평민 혹은 중인층의 감각이다.[19] 양반의 생활이란 남성 주인공이 외출할 때도 우산 든 하인이 배행하는 것이 당연한(『빈상설』 48)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자면 여성 주인공을 홀로 길 위에 던져놓았던 신소설의 감각은 곧 비(非) 양반의 속성을 드러내는 감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최초의 여학생들이 양반의 딸이 아니라 고아나 별실(別室) 출신이었다는 실증적 사실과도 통한다.[20] 주인공 정희를 두고 "저 아이 골격이며

18) 최찬식, 「능라도」, 『한국신소설전집』 5, 을유문화사, 1968, 92쪽.

19) 여기서는 작가 최찬식이 중간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후의 胥吏 시인'이라 불린 아버지 최영년은 서울 아전 출신으로 전형적인 친일 부르주아였다(최원식, 『한국 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24~31쪽 참조). 아울러, 왕족 출신이며 조부가 대원군의 측근이었던 이해조의 경우(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16~23쪽), 특히 1900년대에 창작된 대부분의 소설에서 양반 가문 출신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텍스트의 계급의식이 작가의 계급에 직결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소설에 있어 계급의식이 민족의식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 또한 그것이 작가의 배경 및 정치의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제기해 두고자 한다. 신분 배경이 만족스럽게 밝혀져 있지 않은 이인직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가 되는데, 후일 이인직이 누릴 수 있었던 호소력이란 현재로선 확정하기 힘든 이런 요소와 이어져 있을는지도 모른다.

외양을 사면 뜯어보아도 무지막지한 사람의 자식은 분명 아니니" "봉이 닭의 짝이 아니 되고 기린이 우마에 섞이지 아니"하리라고 일컬었던 『절처봉생』류의 감각(69)이란 신소설 일반에서는 예외적인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상사람'의 딸 길순이 요조(窈窕)한 범절을 보여주고 반면 김승지의 정실부인이 투기와 음란이라는 면모를 내비침으로써 "이년, 이 개잡년아/ 네가, 숙부인(…) 빼대 부인이라도 너 같은 잡년은 없겠다"(하 119)라는 단죄를 받고 '처형'된 이래, 신소설은 언제나 평민의 딸들이 거처하기 편한 처소였다. 이런 계급적 감각이 확장되면 『재봉춘』처럼 백정의 딸과 참서 아들의 결연이 합법화되기도 하고, 『화의혈』에서처럼 기생이 '의기 남자'와 결연하기도 하며, 심지어 『추천명월』에서 보듯 몸종이 주인공 역할로 승격되기까지 한다. 『빈상설』에서 뚜쟁이 화순집의 조카딸 옥희가 명문 이승지 집 며느리가 되고, 『설중매화』에서 시비 난향이 악한이지만 양반가 출신인 안재덕에게 혼인증서를 받아낸 후에야 하룻밤을 허락하는가 하면, 『금의 쟁성』에서 "시골 상한배 집" 딸이 완고 양반의 며느리가 되는 등, 신소설의 남녀 결연에는 계층 사이 교차가 풍성하다. 1910년대라면 여기 "작위를 받아 화족이 된 외에는 다 평민"(『금의 쟁성』 83)[21]이라는 친일적 감각이 개입한 경우도 있었겠으나, 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신분 상승을 갈망하는 중인과 평민 계층의 무의식이었던 듯 보인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대신 남녀 간 결연을 통해 신분 상승을 바라는 욕망이란 물론 보수적인 욕망이다. 충돌하는 두 계층 사이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감각이기도 하다. 판서의 아들과 결혼한 생선장수의 여동생(『안의성』), 서울 계동 황참서 가 며느리가 된 농민의 딸(『해안』), 평양

20) 이화여대 백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이화백년사』, 이화여대 출판부, 1994 참조.
21) 남궁준, 『금의 쟁성』, 유일서관, 1913, 83쪽.

군수를 역임한 승지의 아들과 결혼한 이속(吏屬)의 딸(『능라도』)— 이들은 일찍이 김승지의 첩이 되었다가 비참하게 죽은 길순의 운명을 망각해 버린 주인공들이며, 동시에, 부당하게 죽은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승지를 살해한 후 그 '의기' 하나로 감역의 딸에서 협판의 양녀로 승격한 『현미경』의 빙주의 운명에서 일면만 기억하려는 주인공들이다. 한편에는 『모란병』『광악산』『금강문』『세검정』『옥호기연』『비파성』처럼 중인 계층 자녀들끼리 맺어지는 소설 또한 풍성하고, 또 한편에는 양반 출신의 정숙한 주인공과 평민 출신 간휼한 (시)계모나 첩이 맞서는 『빈상설』『치악산』『목단화』『구의산』『봉선화』『화상설』『신출귀몰』『추천명월』『금국화』 등의 텍스트가 활발하게 생산되는 가운데, 그러나 신소설을 특징짓는 예의 '여성 주인공의 수난'과 그 귀결로서의 '부부 중심성의 확인'이란 비(非) 양반의 사회적 감각을, 또한 진보적이었다가 점차 보수화된 그 감각의 변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개 순결성이라는 유교적 윤리를 실천하는 데 골몰함으로써 만족스런 결말을 맞이하는 신소설의 주인공들은, 여성의 현실적 신체를 드러내고 집 밖으로의 모험을 감행하는 변화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한 발짝을 더 디디지는 않는다. 『혈의누』나 『홍도화』 같은 초기작을 통해 다소 다른 양상이 목격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여성 주인공의 모험은 결코 확장을 위한 모험이 아니다. 흡사 『로빈슨 크루소』와 『패밀라』의 서사를 결합한 양, 신소설은 길 위에서 떠돌면서, 그러나 개발과 정복을 목표 삼는 대신 성적 위협 속에서 육체의 순결성을 지켜내기에 몰두한다. 집 밖에서 보낸 시간 동안 신식 교육을 받는 주인공이 종종 등장하기는 하지만, 교육의 실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으며, 직업을 찾아 사회적 삶을 개척하는 경우는 더더욱이나 드물다. 『목단화』의 정숙이 남장한 채 교사가 되고, 『안의성』에서 악역이었던 봉자와 영자는 출

옥 후 간호부가 되고, 『능라도』에서 도영이 부인 다과점 주인과 친교를 맺으면서 간호부가 되어 "월 15원" 급여를 받으며, 『부벽루』의 김씨 부인이 '최이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전도부인처럼 사는 것이 그나마 직업과 생활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주인공 두 명이 모두 교사가 되어 남자와 교섭 없는 자립적인 생활을 할 것을 표명한 『경중화』는 1920년대의 소작(所作)이다. 하긴, 『천중가절』이라는 연설체 소설에 잘 드러나 있듯 1900년대 당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란 교사와 전도부인을 제외한다면 조산부라든가 은행·철도·우편국의 사무보조원, 그리고 방물장수·밥장수·술장수 혹은 삯바느질꾼 등에 국한되어 있다. 『절처봉생』의 이진사가 성균관 교수가 되고 『월하가인』의 심진사가 서기를 거쳐 외부 협판이 되는 등 남성 주인공에게는 고급 관료로 출세할 길이 남아 있지만[22] 여성에게 그 같은 가능성은 당연히 봉쇄되어 있다. 결국 상승을 꿈꾸는 여성 주인공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사회 진출의 경로란 '동부인(同夫人)'의 자리, 성공한 남성 곁에 서 있음으로써 '여자계'의 대표 인물로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일찍이 조선에 이주한 외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목격된 바 있던 부부 중심 가정의 면면은, 특히 '동부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인상적으로 각인된다. 수교(修交)가 개시된 이래 조선에 온 외국인들은 "아라사 공사와 공사 부인이(…) 야소 탄신날 경축회를" 열고[23] "영국 총영사 조단 씨와 부인이 영국 여황 폐하 등극하신 지 육십 년 경축회를 영국 공사관에서" 거행하며[24] "미국 공사와 공사 부인이(…) 손님들을 공관에서 맞을

22) 물론 이런 출세의 길은 1905년 이후 보호국 체제 하에서 줄어들기 시작해 191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봉쇄된다. 『추월색』의 영창이 관료가 되는 대신 '문학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맥락에서 기억해 볼 만하다.

23) 『독립신문』 1897. 1. 9.

24) 『독립신문』 1897. 6. 24.

터"[25]라는 등 각양의 사교 활동을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의 관습을 빈번하게 드러냈다. "일본 공사 가등씨와 공사 부인"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26] 오래잖아 기념식이나 운동회 같은 공식 행사에서도 "대청에 (…) 각국 공영사들과 기외 부인네들"이 자리를 잡고[27] "내외국 대소 관인과 신사와 외국 부인들이 다 좌석에 참례"[28]하는 모습은 익숙한 것이 되었다. '동부인'의 관습은 남녀동등권의 생생한 지표로 받아들여졌고, 아마 여성의 존재와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극이 된 듯하다. 1894년 이후 일련의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특히 1898년의 만민공동회와 1905년의 대규모 집회·시위 경험[29] 그리고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평민층의 사회의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여성과 어린이 등의 하위주체 또한 그러했다.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1898년 하반기 즈음, 9월에는 여학교 찬성회가 발기되었고, 11월에는 백정이 연단에 올랐으며, 12월에는 10대 초반 소년들의 '자동의사회(子童義士會')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제의 생일인 만수성절을 맞아 지방 아낙네가 충군애국의 뜻으로 연설을 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30] 만민공동회 당시는 집 판 돈을 희사한 과부에서부터 은귀이개를 내놓은 아낙네에

25) 『독립신문』 1897. 7. 1.

26) 『독립신문』 1897. 4. 1.

27) 『독립신문』 1897. 6. 19.

28) 『독립신문』 1898. 5. 31.

29) 梁啓超에 의해 『월남망국사』에서 묘사된 바 있는 1905년에 있었던 대규모 저항의 양상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잘 파악되지 않는다. 동학 계열의 진보회원 전국 회합 등 비교적 친일적인 흐름만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을 뿐이다. 『월남망국사』에서는 당시 저항의 상황을 "종로 큰길거리에 날마다 모이고 처처에서 연설할새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고 땀을 흘리면서 분주하며 전국에 부보상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출몰하여 전보줄을 끊고 철로를 파하며 혹은 일본 군정을 아라사에 전하니"(14)라고 묘사하고 있다.

30) 『독립신문』 1898. 9. 29.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조가 이어졌고[31] 집회 도중 사망한 김덕구의 장례 때는 찬양회 부인들이 묘지에까지 따라갔다. 비록 "각색 금은보패들이며 비단 두루마기에 사인교 장독교를" 탄 사치한 부인네 사이의 여기(餘技)일 뿐이며 "구차한 회원들은 돌아도 아니" 본다는 여론이 있었으나,[32] 또한 '충군애국'이라는 단성적 명분이 지배하는 와중이기는 했으나, 여성은 이 시기부터 사회적 욕망을 학습하게 되었다. "여자는 거내이불언외(居內而不言外)하며 유주식시의(唯酒食是宜)라"는 규범이 동요하면서 집 안/밖의 분리 또한 교란되기 시작한다.[33]

실제를 문제 삼는다면, "남녀가 일반 사람이 되"는 상태를 기약하는 동등권에의 희망은 '동부인'으로 현실화되곤 했다. 여성에게 요구된 것은 개인으로서의 성취가 아니라 가정-사회-국가라는 새로운 체계 내에서의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이었다. 당연히 과잉의 여성성은 경계된다. 1900년대 끝자락에도 "되지 못하게 주릿대 치마에 포도청 걸음 걷는 여편네들"[34]은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만민공동회 당시라면 보수적인 논객들은 불온 분자의 망명이나 효 윤리의 해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을 공적(公敵)으로 꼽았다.[35] 신소설에서도 여성 주인공들은 대체로 '동부인'의 새로운 관습에 안주하는 듯 보인다. "자기가 여자는 되었을지라도 을지문덕 합소문의 사업하기를 자부하"(15)는 『목단화』의 정숙 같은 독특한 개성이 있긴 하지만, 남편과의 재결합에 일체 신경쓰지 않고 같은 여성들을 '자매'라 칭하면서 가부장적 형제애patriarchal fraternity[36]를

31) 『독립신문』 1898. 11. 11 및 11. 19.

32) 「부인회 소문」, 『독립신문』 1898. 12. 7. 찬양회의 반박은 동 12월 10일자 신문 기사에 실려 있다.

33) 징후적인 발언의 하나로 「부인회 통문을 좌에 기재하노라」, 『독립신문』 1898. 9. 28 참조.

34) 「허튼수작」, 『대한매일신보』 1910. 6. 15.

35) 「조약소 여당」, 『독립신문』 1898. 11. 4.

넘어선 연대를 시험하는 이런 인물은 다른 텍스트에선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능라도』의 도영처럼 간호부로 자립을 이룬 주인공마저 정혼자가 등을 돌리자 발광을 하고 말았을 정도이니, 여느 여성 주인공의 의존성이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인 육체성을 지니고 집 밖에 나서기 시작한 주인공들은, 그러나 가정이라는 단위를 통과함으로써만 사회·국가와 연결될 수 있었고, '동부인'이란 새로운 관습과 타협해야 했다. 평민 혹은 중인 계층의 딸들에게 있어 봉건의 영광과 근대적 출세의 가능성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 존재, 즉 명문가의 개명한 아들이 최선의 짝으로 추구되었다는 사실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다만 이런 보수적 감각이 뒤로 갈수록, 특히 최찬식이라는 작가에 있어 강화된다는 사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혈의누』나 『화의혈』이나 『현미경』에 있어 부수적인 데 불과했던 신분 상승의 욕망이 전면화되는 과정은, 주인공이 사회·국가와 지녔던 연계성이 희박해지면서 오직 가정 내의 개별적 존재로 소비되기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4. 남성—이주의 서사와 여성—망명의 서사

집 밖으로 나선 후 여성의 길이 봉쇄되어 있는 반면 신소설에서 남성의 행로는 비교적 자유롭다. 이 사실은 공간적 도약을 이룬 경험의 다과(多寡)에서부터 드러난다. 『혈의누』나 『추월색』 같은 인상적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밖에 여성 주인공의 외국 경험이란 『설중매화』와 『춘몽』, 단기간 체류를 포함해도 『능라도』 정도를 포함하는 데 그칠 따름이다. 『은세계』에는 남동생 옥남과 함께 10년 넘게 미국 유학을 하는 옥희

36) '가부장적 형제애'의 개념 및 사회 구성에 있어 그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C.Pateman, *Sexual Contract*, Standford Univ. Press, 1988, pp.78~79 참조.

라는 주인공이 있지만, 옥남이 "목적 범위가 한층 더 커져서 천하를 한 집같이 알고 사해를 형제같이 여겨서(…) 구구한 생각이 없고 활발한 마음이 생기"는 일취월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반면 옥희는 "여자의 편성으로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아니"한 까닭에 "생각하는 것은 그 어머니라 공부도 그만두고 하루바삐 고국에 가고 싶"어하는 향수(鄕愁)에 집착한다(111~12). 남성이 즐겨 세계를 편력하는 데 비해 여성 주인공에게 있어 집 밖에서의 세계 경험은 위협과 수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혈의누』의 구완서처럼 주도(周到)한 계획 하에 유학을 떠나거나 『추월색』의 영창처럼 외국인 구원자의 손에 이끌려 해외로 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모란병』『옥호기연』『안의성』『해안』처럼 충동적으로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모란병』의 수복은 여주인공 금선의 자취를 좇다가 오해·실망한 후 유학길에 오르고, 『옥호기연』의 막동은 일시 금주를 납치했다가 후환을 우려해 세계 일주에 나서며, 『안의성』의 상현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 갈등이 심각해지자 도피성 세계 일주를 떠나는가 하면, 『해안』의 대성은 아내가 가출했다는 거짓 전보를 받고 홧김에 세계 일주길에 올랐다가 미국 워싱턴에 정착한다.

이처럼 충동적인 발정(發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내는 시간은 생산적이다. 『안의성』의 상현은 각국의 "유명한 정치가 재산가"에게 환영을 받으며 "다수한 기부금을 보조"받는 가운데 일본·중국을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산업과 풍물을 시찰하고(138~39), 『해안』의 대성은 비슷한 경험을 한 후 워싱턴에 정착해 의학 공부에 몰두하며, 『옥호기연』의 막동은 유럽 여행의 경험을 통해 완악한 성품을 스스로 교정하기까지 한다. 로마의 유적을 보며 "비록 제왕의 존귀로도 그 권세를 자뢰하고 마음을 교만히 하여 스스로 호올로 기꺼우려 하다는 마침내 여러 백성에게 버린 발"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37] 파리인들의

방탕한 모습을 목격하고는 “옛말에 빈천하여야 영웅이 되고 곤란하여야 지혜가 생기나니”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부잣집에 태어나 부랑하게 살아온 생애를 반성하며(33~35) 이탈리아에서는 “교만한 마음이 없고 더욱 겸손”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어낸 사르데니아 왕 에마누엘레 2세에 경탄하는(36) 식이다. 『옥호기연』의 막동뿐 아니라 서사가 진행되면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갱생하는 남성 주인공은 드물지 않다. 상해로 떠난 『빈상설』의 정길, 군대 해산 후 전국을 유랑하는 『화세계』의 구정위, 학교 통학을 고집하는 아내와 헤어진 후 뒤늦게 유학길에 나선 『경중화』의 범칠 등은 소설의 시간이 흘러감과 더불어 현저하게 변화와 성숙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악역을 맡은 여성들의 변화가 서사가 사실상 종결된 후에야, 그것도 응징과 용서에 의해 나타난다면 남성의 변화는 서사 한복판에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나아가 신소설에서 주역을 맡을 경우 남성은 여성 주인공에 비해 한결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듯 비친다. 여성이 지배하는 신소설의 세계에서 능동적 남성 주인공이란 드문 존재이지만, 『은세계』의 최병도와 옥남, 『송뢰금』의 이충국, 『소금강』의 구홍서 등, 간혹 등장하는 이 예외적인 인물들은 명백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살아간다. 『은세계』의 최병도는 일찍이 김옥균을 면대한 후 감심, “갑신년 십월에 변란이 나고 김씨가 일본으로 도망한 후에”(55) 본격적으로 치부(致富)를 시작했으며 “문명한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여(…) 우리나라를 붙들고 백성을 건지려는 경륜”을 품고 살았다. 최병도가 강원 감사의 토색에 항거하다 비명횡사한 후, 중단된 개혁의 꿈은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 옥남에 의해 계승된다. 『송뢰금』에서는 상업에 뜻을 둔 청년 지사 이충국이 러일전쟁이 한창인 혼란한 정국에서 “원산의 굴밭과 북관의 북어와 동해 고래잡기로 어업

37) 이해조, 『옥호기연』, 보급서관, 1912, 30쪽.

개발을 시작"(48)한 후 제조 공장을 설치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야심찬 꿈을 꾼다. 『소금강』에서 활빈당 무리에 합류한 구충서는 "갑신개혁당 간련으로 금갑도 위리안치를" 간 구도사의 아들로, 약탈한 재물로 이재(罹災) 동포를 구원한 후 북간도로 이주, 신천지 개척에 나선다. 이들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는 아들의 역할을 자임하며[38] 유랑 그 자체로 서사를 시종하는 여성 주인공들과 달리 스스로 과업을 설정하고 이행해 나간다. 물론 이들 생산적-실천적 남성의 대척점에는 『귀의성』의 김승지로 대표되는 일군의 '무능한 남성'들이 있고 『빈상설』『목단화』의 아버지나 『치악산』의 남편에게서 목격할 수 있는 '부재하는 남성'들이 있지만, 이들은 남성-조연들이고, 남성 주인공의 경우는 부(父)-자(子)의 계승과 생산적-실천적 면모가 두드러진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남성 주인공을 내세운 소설이 신소설 양식이 출현한 당대, 즉 1900년대 중·후반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39] 주지하다시피 신소설은 갑오개혁의 사회·정치적인 현실과 밀착되어 있으며 대개 1894년 이후를 배경으로 했지만[40] 막상 1900년대 중·후반이라는 당대를 서사화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소설 내 정황으로

---

38) 『송뢰금』의 경우 남성 주인공의 생부가 등장하지는 않으나, 이충국과 더불어 소설의 또 다른 서사를 이끄는 계옥의 아버지 김진사는 "갑신년 전 일본에 갔"다가 갑오개혁 당시에는 관료로 봉직했던 인물로, 이충국은 김주사의 존재를 통해 계옥을 인지하고 내내 김주사의 부재를 아쉬워한다.

39) 역시 남성 주인공을 중요하게 내세워 멕시코 노동 이민 문제를 다룬 『월하가인』의 경우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시작해 주인공 심진사가 '외부 협판'으로까지 출세한 시점에서 종결된다. 물론 갑오경장 직후라는 서술자의 설명과 달리 소설의 발단 계기가 되는 멕시코 이민은 1904년 이후의 사건이었지만 말이다(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266쪽 참조). 남성 주인공= 근접한 당대성이라는 일반성에서 다소 벗어난 사례라고 할 만하다. 『월하가인』은 『은세계』『송뢰금』『소금강』과 달리 강점 이후인 1911년에 출간된 책이다.

40) 이재선, 「신소설에 있어서의 갑오개혁」, 『새국어생활』 4권 4호, 국립국어원, 1994, 4쪽.

보아 당시를 배경으로 한 경우라 해도 러일전쟁과 외교관 박탈,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 등 정치적 정황이 구현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귀의성』은 1904~5년을 배경으로 하지만 정치적 정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설 말미에 있어서는 '시앗새 전설'까지 소개하는 설화적 세계로 퇴행하고 있고[41] 『모란병』은 경인선 기차가 "일본 군사만 수없이 싣고 다니"는 광경, 즉 1904~5년 러일전쟁 당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시대적 배경을 10년 전 청일전쟁 무렵이라고 언명하고 있으며[42] 『화세계』는 "전보가 사면에서 눈조각같이 날리며 군대 해산의 명령이 내려"온 1907년을 중요한 서사적 계기로 하면서도 필공과 승려가 등장하는 고담적 세계로 옮겨가 버린다.[43] 세심하게 살펴보자면, 『혈의누』의 소설 내 시간인 1894~1902년이 웅변하듯이 신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사이, 즉 1894년에서 1904년 사이에 일반적으로 국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모란병』이나 『월하가인』에서 목격되는 일종의 시대착오anachronism가 보여주듯, 실질적으로 러일전쟁 이후를 상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일전쟁 직후로 서사의 배경을 끌어올리고 있는 사례도 없지 않으며, 반대로 『혈의누』『화세계』나 『절처봉생』『추월색』처럼 배경의 당대성을 증명하는 지표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들 지표가 서사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당대라는 감각을 환기시키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다. 신소설 일반을 두고 말하자면 당대 직전, 즉 1894~1904년이 공통의 배경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남성 주인공의 신소설이 이런 공통성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러일

41) 자세한 내용은 권보드래, 「신소설의 근대와 전근대」,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도전과 갱신의 한국문학사』, 역락, 2008 참조.

42) 이해조, 『모란병』, 보급서관, 1911.

43) 이해조, 『화세계』, 동양서원, 1911, 15쪽.

전쟁 이후의 새로운 정치적 조건, 즉 일본의 보호국 체제라는 조건에 이들 소설이 정면으로 응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물론 1905년 이후의 행보란 순조로울 수 없다. 1894~1904년이 열강 간 세력 균형으로 한반도가 외형적인 독립이나마 온전히 할 수 있는 시기였다면, 1905년 이후는 국가 상실의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한다. 중국의 梁啓超가 "조선은 이제 조선의 조선이 아니요 일본의 조선"이라고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게다가 1906년의 최초 등장을 거쳐 신소설이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1907~8년이라면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이 즉위하는 한편 내각이 친일적이요 평민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한 때이다. 계몽과 구국의 담론이 뜨겁게 토로되었지만 그 열기가 좌절되고야 말리라는 의식 또한 점차 또렷해졌던 1900년대 후반, 신소설의 남성 주인공들이 선호한 것은 해외 이주라는 행로였다. 활빈당 일당을 끌고 북간도로 이주하는 『소금강』의 구홍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겠거니와, 『월하가인』의 심진사는 멕시코로, 『송뢰금』의 김진사는 하와이로 각각 노동이민을 떠나고, 『서해풍파』의 해운·해동 형제는 미국으로 가서 "남극탐험가"[44]로 성공을 거둔다. 『금의쟁성』에는 주변 인물의 이주 결심이 잇따라 전해지고 『소학령』에서 강한영은 간도로 영구 이주할 마음으로 처자까지 불러들였다가 후일 귀국한다. 신소설이라기보다 번안소설이라 불러야 마땅한 사례이긴 하겠으나,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 가운데 유일하게 남성 주인공을 내세운 『형제』의 홍영식이 상해로 이주해 금융가로서 입신한다는 사실 역시 이 맥락에서 기억해 둘 만하다. 이 밖에 남성 주인공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인, 적어도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설로 더 떠올릴 만한 것은 『고목화』『구의산』『박연폭포』『연광정』『춘몽』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이 중 『구의산』에서는 오복이 일본인

44) 이상춘, 『서해풍파』, 유일서관, 1914, 113쪽.

이학박사를 따라 수년 간 세계 탐험을 경험하고, 『연광정』에서는 고학생 태준이 일본인의 후원으로 일본 대학에 유학의 길을 떠나고 있다.

하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송뢰금』의 건실한 청년 실업가 이충국은 아마 김진사의 딸 계옥과 더불어 하와이로 떠나 새 삶을 개척해야 했을 것이다. 1905년 이후 대한제국에서 관료로서의 입신이란 이미 의미를 잃고 있었고, 그 밖의 사회적 활동 역시 의미가 근본적으로 제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록 언론·출판 활동이 활발해지고 교육 운동 또한 왕성해졌지만, 운동의 무제한한 전개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 즉 개인과 국가의 주권sovereingity은 이미 결정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었다. 현실 속에서의 고투를 회피할 수야 없었다 해도,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전환을 널리 상상했던 것은 도리어 당연한 일이다. 역사·전기물이 과거로 이동해 민족의 영광을 재현했다면, 남성 주인공의 신소설은 한반도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열어갈 것을 꿈꾸었다. 『송뢰금』과 『소금강』 『서해풍파』가 전면화한 바 있고 『월하가인』 『소학령』 『금의쟁성』이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던 이주의 서사란, 1900년대 후반에 급증하기 시작한 이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면서, 1905년 이후 눈앞의 당대와 씨름하고자 했던 실천적 노력의 귀결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신소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성 주인공의 소설이 1894~1904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남성 주인공의 신소설은 1905년 이후로까지 관심을 확장하면서 한반도의 폐색된 현실을 넘어 경역(境域) 바깥을 개척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현재 확인되는 신소설 중 10여 편에서 산견(散見)되는 남성 주인공 가운데는, 모험과 역경의 서사 가운데 정체성의 위기로까지 몰리는 인물도 있다. 『고목화』의 권진사나 『서해풍파』의 해운이 대표적이다. 권진사는 도적 소굴에서 고초를 겪은 후, 해운은 무인도에 표류했다가 밤새 표범

에게 쫓겨다닌 후 각각 정신이상의 징후를 보인다. 권진사는 "사람이 둘만 있어도 벌벌 떨며 나 죽이러 온다고 소리를 지르"는 상태에 빠지고[45] 해운은 찢어진 탕건에 "두—두—/ 에그 무서워/ 두—두—/ 에그 저것 보아/ 어기야디야/ 두—두—"라고 쉼없이 중얼거리면서 무인도에서의 공포를 강박적으로 되풀이한다(75~76). '공포'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이들의 광증(狂症)은 외부 세계와의 격심한 충돌이 남긴 상흔trauma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 주인공의 경우는 어떤가? 별반 주목받은 바 없지만, 신소설에는 여성들의 광증이 드물지 않게 목격된다. 『은세계』에서 최병도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겪고 미쳐버린 이래, 유사한 시련은 주·조연 격의 여러 인물들에게 닥친다. 주인공 격인 인물 중에서 따지자면 『설중매화』의 옥희, 『안의성』의 정애와 『능라도』의 도영이 눈에 띄고, 주변적 인물까지 포함하면 『모란봉』에서 주인공과 동명(同名)인 장옥련, 『화상설』의 한씨 부인 등을 거론해 볼 수 있다.[46] 이들 중 『설중매화』의 옥희나 『모란봉』의 장옥련은 겁탈당할 위험을 넘긴 후 시룽시룽 제정신을 잃고, 『안의성』의 정애와 『능라도』의 도영은 남편 혹은 정혼자와 뜻밖의 이별을 한 후 발광(發狂)한다. 『화상설』의 한씨 부인이 실성에까지 이른 것은 남편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은세계』의 최병도 부인과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여성들이 발광하는 것은 정혼자 혹은 배우자와의 폭력적 분리에 직면해서이다. 『은세계』처럼 분리의 양상이 깊은 사회성을 담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설중매

45) 이해조, 『고목화』, 박문서관, 1922, 98~99쪽.

46) 『현미경』의 삼할멈 역시 실성기를 보이면서 반동인물의 계략을 탄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 경우 실성의 원인과 과정 등이 순전히 삽화적으로 보이므로 제외한다. 여러 모로 번안이라고 판단되는 『우중행인』에서의 숙자의 발광 및 유명한 『장한몽』에서의 히스테리 등 1910년대 번안소설에서의 유사 사례 또한 논외로 한다. 물론 이들 사례가 '신소설에 있어 정신이상 모티프의 빈번한 등장'이라는 인상을 강화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화』『안의성』『능라도』와 『모란봉』『화상설』에서의 분리는 개인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데 그친다. 폭력적 분리를 경험한 후, 신소설의 여성들은 남성 주인공과는 사뭇 다른 광기의 양상을 보인다. 남성 주인공의 광증이 '공포'로 특징지울 수 있는 것이라면, 여성의 광태는 '원한'과 '공격욕망'이라고 불러야 할 만한 것이다. 『은세계』에서 최병도 부인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자 전형적이다. 남편이 죽은 후 아들과 딸이 귀환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을 실성한 채 골방에 갇혀 지내는 『은세계』의 최병도 부인은 그런 중에도 강원 감사에 대한 원한만은 잊지 않는다. 딸을 감사로 그릇 보고 방망이로 치려고도 하고, 베개에 칼을 꽂기도 하고, 벌거벗은 채 뛰어나가려 하기도 한다. 몸가짐이나 옷차림은 전혀 돌보지 않아 불결과 추악의 상징처럼 보일 정도다.[47]

발병 원인과 증상에서부터 구분되는 남성과 여성의 광증은 치료되는 양상에 있어서도 다르다. 화적패라는 문제를 다룬 『고목화』와 국가의식의 강박 없는 해양 모험의 세계를 다룬 『서해풍파』에서, 이들 문제와의 충돌 때문에 한때 실성했던 남성 주인공들은 의약(醫藥)의 혜택에 의해 서서히 치료된다. 반면 광증을 일으킨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극적 회복을 경험한다. 『은세계』의 최병도 부인이 남편과 꼭 닮은 모습으로 성장한 아들과 재회한 후 본정신을 찾고 『안의성』의 정애가 남편과 해후한 후 착란 상태에서 깨어나고 『능라도』의 도영이 정혼자의 참회 앞에서 다시 온전하게 되는 등, 여성 주인공들의 광증을 치료하는 것은 재회의 한순간이다. 최병도 부인은 아들로부터 정계(政界)가 일변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정애는 "그 남편의 음

47) 한국문학사에서 이런 광녀가 대거 등장하는 것은 신소설 양식이 유일하다. 이들은 19세기 중반 영국 소설에 출현하기 시작했던 '광녀'의 형상을 연상시키지만, 위협적이며 반사회적 존재였던 영국적 존재와는 달리 철저하게 사적인 존재로 환원된다(N.Armstrong, Desire and Domestic Fiction, pp.164~65 및 pp.252~53 참조).

성을 듣고 그 남편의 용모를 보매 신경의 감각기가 즉시 회복"(147)되는 극적인 치유를 보여주었다. 『능라도』의 도영 또한 정혼자의 백배사죄를 받자 "홀연히 쾌복이 되고 정신이 전과 같"(194)아진다. 증상으로서의 공포와 원한, 치료법으로서의 의약과 극적인 재회— 실성한 경우조차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차이가 엄연하다. 남성이 외부와의 충돌 때문에 극심한 타격을 받는 반면 여성은 내부적 분리 때문에 정신 이상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발병(發病)의 차이 또한 다시 주목해 두어야 하겠다.

외부와의 충돌, 좌절과 공포, 그러나 점진적인 치료와 재도전— 이런 남성적 증상이란 1905년 이후의 당대를 소설의 배경으로 끌어들이고 이주와 개척을 다짐하는 남성 주인공의 서사를 적절히 상징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부적 분리, 좌절과 원한, 그리고 극적인 회복과 가정으로의 귀환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여성의 서사적 굴곡은 어떻게 위치지울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 신소설의 일반적 서사, 즉 여성 주인공의 성적 수난에 집중하는 서사는 1894~1904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착근(着根)되어 있다. 이 시기가 특별히 주목받았던 까닭은 분명하다. 정치·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근대적 변화가 실감되기 시작했으나 그 종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연대, 즉 가능성으로서의 연대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갑오개혁과 청일전쟁(1894~95), '구본신참(舊本新參)'식 조정과 친러파의 득세(1895~96), 대한제국의 출범과 민간 정치운동의 격화(1897~98), 그리고 정치운동의 좌절과 황제 전제권의 강화(1899~1904)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열강 간 일시적 세력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고, 따라서 제한 속에서나마 독립적인 발전의 길이 열려 있었다. 일본의 보호국protectrate으로 전락,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군대마저 해산된 1905년 이후의 상황과는 여러 모로 달랐던 것이다. 신소설이 등장하여 왕성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1906년부터 1910년까지의 상황에서 1894~1904년을 돌이켜본다는 것은 잃어버

린 정치적 가능성을 재구성해 보려는 노력을 뜻한다. 보호국 체제를 넘어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라도 1894~1904년이라는 연대는 재조형될 필요가 있었다.

이렇듯 신소설을 1894~1904년에 대한 사회·정치·문화적 재조형의 노력으로 읽을 때, 여성 주인공의 가출과 수난 및 분리와 원한의 경험 또한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에 특징적이었던 망명객들의 존재이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문제가 된 망명객들의 존재는 '보천지하(普天之下) 막비왕토(莫非王土)'의 세계였던 근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감히 역린(逆鱗)의 죄를 범하고도 군주의 권위를 피해 도주한 이들은 '내재하는 외부'로서 내내 정치권력을 불편하게 했다. 외국에 망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국내 정치에 관여했거나 혹은 관여한다고 상상되었으며, 32인 혹은 27인으로 명단화된 외에 일군의 청년, 군인, 화적패 등과 접속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육박해 왔다.[48] 1898년의 이준용 사건, 1901년의 정부 전복 음모 사건, 1902년의 혁명일심회 사건 등 고종을 폐위시키고 신정부를 조직하려는 일련의 정치적 시도에서는 늘 이들 망명객들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내재하는 외부'의 도발은 황제와 그 주변을 신경증적으로 만들었다. 특히 1899~1904년에, 황제의 전제권은 강화 일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권력은 더 이상 한반도 유일의 권력일 수 없었다. 망명객들의 존재를 통해 일종의 망명 정부를 상상하는 시각이 계속 존재했기 때문이다. 망명객들은 외부적이라기보다 내부적인 존재로서, 국가의 경계 밖에 위치하면서도 계속 귀환을 꿈꾸는 존재들이었고, 경계 너머의 모험과 확장 대신 방랑과 회복의 여정(旅程)을 실천하는 존재들

48) 대한제국기 망명객의 존재 및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는 현광호, 「대한제국기 망명자 문제의 정치·외교적 성격」, 『사학연구』 58·59호 합본호, 한국사학회, 1999 참조.

이기도 했다.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을 통해 이러한 망명객의 존재가 직접 표상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까지야 없겠지만, 적어도 '내재하는 외부'의 문제성, 그리고 그 방랑과 귀환이라는 구조 자체를 신소설이 공유하고 있다고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 여성성의 정치적 함의와 신소설

역사·전기물과 신소설 사이, 그리고 신소설 내부에서도 여성 주인공과 남성 주인공 사이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절을 가상해 보기는 어렵지 않다. 역사·전기물은 『애국부인전』『라란부인전』 같은 예외에도 불구하고 대개 남성-영웅을 내세워 민족사를 기술하는 서사물이었고, 반면 신소설은 여성-주인공을 내세워 당대 사회를 보여주는 서사였다. 역사와 당대성 사이의 거리, 그리고 남성 영웅hero과 여성 주인공heroine 사이의 거리가 역사·전기물과 신소설 사이의 분절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이 분절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분절처럼 비치기도 한다. 남성은 가정에서 벗어나 우애와 공동체의식을, 나아가 인류에 대한 관심을 지향하는 존재요, 반면 여성은 가정과 성 생활에 집착하는 존재라는 관념은 역사·전기물과 신소설이라는 양식 자체를 설명하는 데도 성공적으로 대입되는 듯하다. 신소설이 '개혁기의 정치성'을 핵심으로 하는 양식[49]이면서도 결국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파탄을 드러냈다는[50]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또한 이같은 남성성·여성성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의 서사를 성적 수난과 귀환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반면 남성 주인공의 서사

49) 이재선, 앞의 글, 4쪽.

50)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는 모험과 이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성성과 남성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대립에 적절히 대응된다.

이런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신소설이라는 양식 일반의 문법을 두고도 풍성한 정치·사회적 독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글에서 제기하려는 요점이다. 신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의 서사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그에 따르는 육체의 현실화라는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으며, 중간 계급의 사회적 감각과 그에 수반하는 계급 간 충돌과 타협의 정황을 포착해 내고 있고, 이주-모험과 망명-복귀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 기획 중에서 후자의 서사를 상징화해 보여주고 있다. 1900년대 당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구분이 오늘날처럼 확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부기해 둘 만하다. 1900년대 후반, 특히 1907년의 평민적이고 친일적인 '신내각' 구성 후 공공의 내각 대신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반민족적 태도에 있어서보다 사적 영역에서의 비도덕성에 의해 더욱 가차 없는 공격 대상이 되었다. 부인의 태도, 첩과의 관계, 성 도덕에 있어서의 문란 등 사적인 약점이 여지없이 폭로되었고, 그것이 곧 공적인 '악'의 증거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신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이 겪는 성적 수난과 순결성의 유지 또한 순전히 사적인 의미로만 소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성의 순결성이 여성은 물론 남성의 공적인 삶에도 관여하던 시기, 순결성이란 증명해야 할 도덕적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민족이라는 단일 주체로의 열렬한 호명이 1900년대의 특징이었다면, 국가라는 경계 내부에서 성과 계급과 국가 기획의 차이를 보여준 신소설은 당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창(窓)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소설 내부에서 목격할 수 있는, 여성 주인공 사이에 뜻밖에 두드러지는 개성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기록해 둘 수 있다. "이십이 훨씬 넘은 듯한 노처녀"로 "키도 훌씬 크고 몸도 굵직하고(…)

여중영걸로 난" 주인공이나(『운외운』) 시비에게 "인두판을 집어던지"고 "자를 집어치"는가 하면 아비에게까지 "포달을 피"지만 정혼의 의리를 지키는 데는 결연했던 주인공(『단산봉황』), 초례청에서 스스로 신랑을 선택할 정도로 '완패'한 신부인 주인공(『검중화』) 등은 아리땁고 정숙한 신소설의 전형적 주인공에 비할 때 이채를 발하는 여성들이며, "우리는 (…) 애정의 속박을 받지 말며 남자의 노예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겠다며 깔깔대고 웃는(49) 『경중화』의 두 여성은 동성 결혼이라는 급진적 결론을 사양치 않았던 조선시대 『방한림전』을 연상시키는 바 있는 흥미로운 예외이기도 하다. 『홍도화』의 태희나 『목단화』의 정숙과 『현미경』의 빙주 등, 1900년대의 개성적 주인공들은 이렇듯 1910년대 신소설에도 간간이 후예를 남기고 있는데, 가정으로의 귀환으로 종결되고 흔히 친일의 색채를 띠었던 신소설의 서사 속에서나마 이런 이채는 그대로 작은 변이의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국신소설전집』, 을유문화사, 1968.
『신소설・번안(역)소설』, 아세아문화사, 1978.
『신소설전집』, 계명문화사, 1987.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2. 단행본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160~162쪽; 176~177쪽.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28~34쪽.
이화여대 백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이화백년사』, 이화여대 출판부, 1994.
장시광,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사, 2006, 11~50쪽.
최원식, 『한국 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24~31쪽.
_____,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16~23쪽.
阿英, 전인초 옮김, 『중국근대소설사』, 정음사, 1987, 297~303쪽.
張競, 임수빈 옮김,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소나무, 120~140쪽.
中村光夫, 고재석・김환기 옮김, 『일본 메이지문학사』, 동국대 출판부, 2001, 160~161쪽.
Armstrong, N., *Desire and Domestic Fiction*, pp.164~165 및 pp.252~53.
Butler, J., 김윤상 옮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성'의 담론적 한계들에 대하여』, 인간사랑, 2003, 233~58쪽.
Djuara, P., 문명기・손승회 옮김,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2004, 47쪽 및 56쪽.
Houser, A., 염무웅・심성완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창작과비평사, 1989, 80쪽.
Pateman, C., *Sexual Contract*, Standford Univ. Press, 1988, pp.78~79.

3. 논문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한국현대문학연구』 10집, 한국현

대문학회, 2000, 27~51쪽.
_____, 「신소설의 근대와 전근대」,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도전과 갱신의 한국문학사』, 역락, 2008, 137~165쪽.
김경애, 「신소설의 '여성 수난 이야기' 연구」, 『여성문학연구』 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111~134쪽.
배주영, 「신소설의 여성담론 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_____,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이인경, 「여성 영웅 소설의 유형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사재동 편, 『한국 서사문학사의 연구』 4, 박이정, 1995, 1345~1378쪽.
이재선, 「신소설에 있어서의 갑오개혁」, 『새국어생활』 4권 4호, 국립국어원, 1994, 3~32쪽.
정동보, 「'원앙호접'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중국인문과학』 20호, 중국인문학회, 2000, 263~283쪽.
허근배, 「張恨水와 그의 소설」, 『교육연구』 5호,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1988, 53~69쪽.
현광호, 「대한제국기 망명자 문제의 정치·외교적 성격」, 『사학연구』 58·59호 합본호, 한국사학회, 1999, 1035~1065쪽.

Abstract

Gender and its Political Strategies of 'New Novel(Sinsosŏl)' in Korea

Kwon, Boduerae

The basic scheme of sinsosŏl's narrative is an adventure of a female character. Heroines as female characters rule over the inner space of sinsosŏl while male characters are limited to the auxiliary roles, and the adventures of heroines form the main plot while male characters are silent in exile or in education process. The adventures of heroines are mainly sexual ones, which are marked by everlasting dangers of rape or harassment. How can we understand such an asymmetry which promises a heroine a leading role of plot and exploits her with sexual threatening at the same time? This essay suggests three staged approach to this problem. First, the female characters who dares to out of home and experiences sexual dangers show the development of female bodies from premodern abstractness to modern corporeal reality. Secondly, those characters express the middle class situation through the sense of dependence and the desire for class mobilization. Thirdly, they symbolize the situation of political exile through the escape-return narrative while the male characters seek the possibility of emigration. Works of sinsosŏl have been blamed for the neglect or distort of contemporary social circumstances, yet they imply the political strategies of gender, class, and nation.

Key words : sinsosŏl, female character, gender, sexual sufferings, middle class, exile, emigration, politics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